

## 8주차

### \* 대상자, 동료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

(대상자 및 동료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 
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해본다)

- 성실, 정직, 신의의 규칙간의 충돌 시 어디에  
기준을 둘 것인가?

- 자율성 존중 누구의 기준인가?

- 정의의 원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?

**(사례 3,4,5,6)**

\* 각 사례에 대해

- 1) 각 자의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후
- 2) 팀 별로 서로 토의 후
- 3) 최종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동을 계획해 본다.

\* 윤리적 딜레마 사례  
practice

## \* 사례 3

박간호사는 같은 병동 양간호사가 투약실수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. 그러나 환자에게는 투약실수로 인한 부정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. 양간호사는 박간호사에게 수간호사에게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. 박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?

## \* 사례 3. 생각해보기

위의 사례는 동료와의 신의, 성실의 원칙과 문제발생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원칙, 정직의 원칙, 환자에 대한 악행금지의 원칙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.

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임상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.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
## \* 사례 4

박간호사는 병동 주치의로부터 환자 채혈 시 5cc정도를 더 뽑아서 냉장고에 따로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. 주치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과과장 차교수가 제약회사와 함께 새로운 백신을 개발 중이라 환자들의 혈액이 필요하여 특별히 부탁한 것이라고 하였다.

박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?

## \* 사례 4. 생각해보기

위의 사례는 동료와의 성실의 원칙과 정직의 원칙, 환자에 대한 악행금지의 원칙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. 특히 동료가 의사이자 상사일 경우 자신의 향후 병원 생활과도 관계가 있는 상황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.

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
## \* 사례 5

이간호사는 정형외과 외래에서 일하고 있다. 어느 날 16세 김양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.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헤모글로빈이 매우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. 이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김양이 임신 4개월이라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털어놓았고 다음주에 낙태할 계획이며 어머니에게는 비밀이라고 하였다.

이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## \* 사례 5. 생각해보기

위의 사례는 환자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규칙과 정직의 규칙, 간호사로서의 악행금지의 원칙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. 특히 환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또한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

## \* 사례 5.

자율성 존중의 원칙 적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

(산모가 낙태를 원한다고 할 때 이것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까요? 산모가 태아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?)

# \* 사례 5.

자율성 존중의 원칙 적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

## ※ 사전동의(Informed consent)

사전동의의 원칙은 자율성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으며 (Davis & Aroskar : 1983) ‘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’ 이다.

사전동의를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 가지 기준은

- 첫째,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전문직에서 시행되는 모든 내용이며
- 둘째,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 보통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며
- 셋째,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.

# \* 사례 5.

자율성 존중의 원칙 적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

Nürnberg Code(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규약)에 의하면 사전동의 3가지 기본요소로

첫째, 동의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

둘째, 선택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외부의 강요나 간섭은 없어야 하고

셋째,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전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

## \* 낙태(인공임신중절수술)는 원칙적으로 불법

\* 다만, 임신 기간이 24주 이내이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한 허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

\* 허용되는 경우

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

\*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,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

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
\* 전염성질환은 풍진, 독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

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
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

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\* 위의 5가지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하에 혹, 본인이나 배우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가능. **But**, 허용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될 경우, 형법상 처벌 가능

# \* 사례 6

양 간호사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이다. 오늘 갑자기 신장이식 기증자가 나타났는데, 현재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중 4명에게 기증된 신장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대기자 A씨는 70세이 사업가이며 꽤 큰 기업을 이끌고 있다.
- B씨는 40세로 대학 조교수이며 휴직 중으로 독신이다

# \* 사례 6..... 계속

- C씨는 17세 고등학생으로 공부는 중간 정도이며 착하고 모범적이다.
- D씨는 30세 가장으로 부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돌보고 있고 현재 생활형편이 어렵다.

양간호사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장기이식을 하도록 결정해야 할까?

# \* 사례 6. 생각해보기

위의 사례는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.  
분배적 정의를 ① 능력에 따른 분배, ② 성과에 따른 분배, ③ 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, ④ 필요에 따른 분배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결정할지는 각자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

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